



2026

접수번호

우체국 문화전

제34회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글짓기 대회

응모 구분	중등부
제 목	한 사람의 따뜻한 발걸음이 배달해준 마음

얼마 전,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엄마가 내 이름으로 온 우편물을 건네주셨다. 누런 봉투에는 익숙한 글씨가 뽀뽀뽀뽀 적혀 있었다.

‘대구에 사는 우리 강아지에게.’

편지 안에는 짧은 글과 함께 잘 말린 대추 몇 알이 들어 있었다.

“우리 강아지, 밥 잘 먹고 학교 잘 다니제? 할매는 잘 있다. 올해 고구마가 잘돼가 니 생각이 났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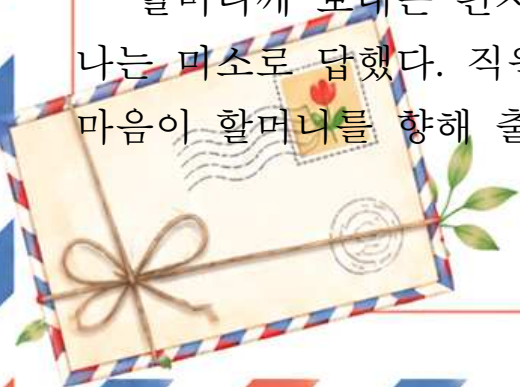
할머니는 편지에 꼭 무언가를 함께 넣으셨다. 말린 나물이나 작은 사탕, 밭에서 처음 딴 고추 같은 것들이었다. 할머니에게 우편물은 손주에게 닿는 마음이었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할머니께 답장을 썼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라는 말을 쓰고 나니 그 뒤에 이어 갈 말이 잘 떠오르지 않았다. 보고 싶다는 마음은 큰데,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문장은 너무 짧았다. 결국, 할머니가 가장 궁금해할 내 근황을 적었다.

다음 날 아침, 우체국 창구에서 봉투를 내밀자, 직원께서 웃으며 말씀하셨다.

“할머니께 보내는 편지인가 보구나.”

나는 미소로 답했다. 직원께서 편지에 도장을 ‘탁’ 찍는 소리가 마치 내 마음이 할머니를 향해 출발하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2026

접수번호

우체국 문화전

제34회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글짓기 대회

응모 구분	
제 목	

며칠 뒤, 비가 많이 내려 밭을 살피 드리기 위해 할머니 댁으로 향했다. 할머니는 언제부터 나와 계셨는지 집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로 나를 보자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으셨다.

“우리 강아지 왔나!”

나는 할머니 품에 안겼다. 순간,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때, 오토바이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다. 우체부 아저씨였다. 아저씨는 할머니 댁 앞에 멈춰 서서 우편물을 내미셨다.

“오늘은 손주가 와 있네요. 좋으시겠어요.”

할머니는 반갑게 우편물을 받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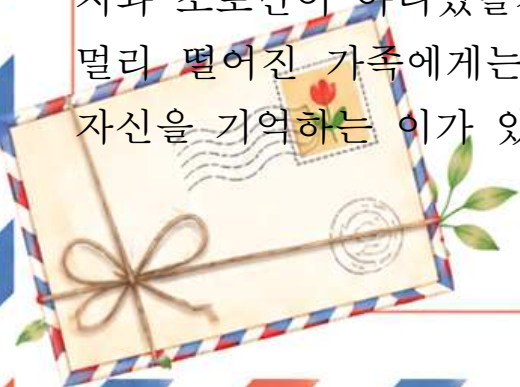
“아저씨 아니었으면 우리 손주 얼굴도 못 보고 살 뻔했데이. 매번 편지를 잘 전해 줘서 고마우이.”

우체부 아저씨는 손사래를 치며 웃으셨다.

“저는 배달만 한 걸요. 편지를 쓰는 마음이 대단한 겁니다.”

우체부 아저씨는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군가의 소식과 기다림을 등에 싣고 마을 곳곳을 찾아가셨을 것이다. 어쩌면 아저씨가 배달한 것은 편지와 소포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멀리 떨어진 가족에게는 안부와 반가운 소식을, 외로운 사람들에게 아직 자신을 기억하는 이가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었을 것이다.





2026

접수번호

우체국 문화전

제34회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글짓기 대회

응모 구분	
제 목	

할머니는 편지에서 늘 힘들다는 말씀 대신 “고구마가 잘됐다”고 하였고, 외롭다는 말씀 대신 “편지 잘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할머니의 거칠고 갈라진 손을 꼬옥 잡아드렸다.

멀어지는 우체부 아저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때때로 아주 긴 거리가 놓인다. 하지만 그 거리를 잇기 위해 누군가를 생각하며 꼭꼭 눌러 쓴 몇 줄의 글, 정성껏 싸 넣은 작은 간식, 그리고 그 마음을 빠짐없이 전해 주는 한 사람의 발걸음이면 충분할지도 모른다.

앞으로는 할머니가 내 편지를 기다리기 전에 우체부 아저씨가 들고 갈 마음을 정성껏 준비하리라 다짐했다. 그리고 우체부 아저씨가 배달한 것은 한 통의 편지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우리의 그리움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